

check ME up!

2026년 7월 4주차

리서치본부 투자전략팀

조병현 투자전략 | bhcho@daolfn.com

박영찬 크레딧 RA | pychan@daolf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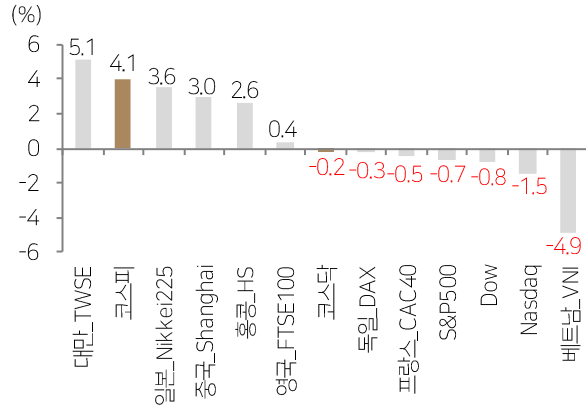
홍록은 투자전략 RA | hongre@daolfn.com



I . Weekly Review	2p
II . 경제지표 Preview	3p
III. 이벤트 일정 & 증시 동향 및 전망	4p
IV. Key Chart & 핵심지표	5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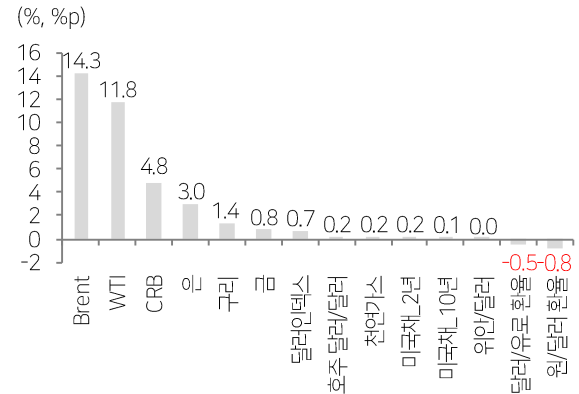
I. Weekly Review

글로벌 증시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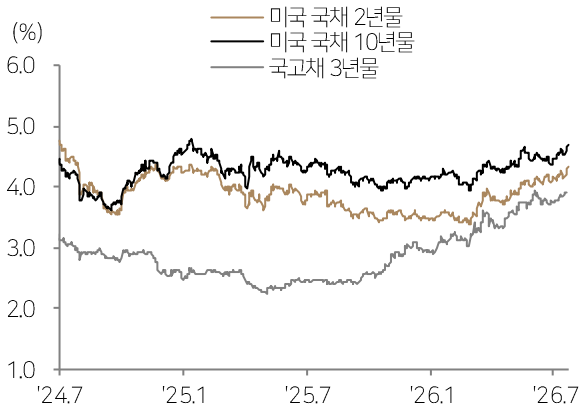
Note: 수익률은 7/17일 대비 7/23일 증가 기준
Source: Bloomberg, 다올투자증권

글로벌 FICC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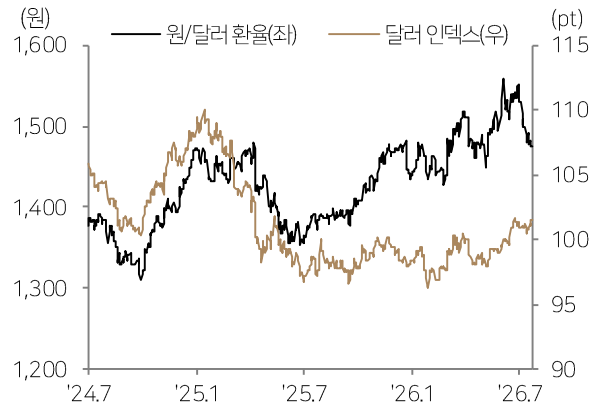
Note: 수익률은 7/17일 대비 7/23일 증가 기준. 미국 국채는 %p
Source: Bloomberg, 다올투자증권

채권 수익률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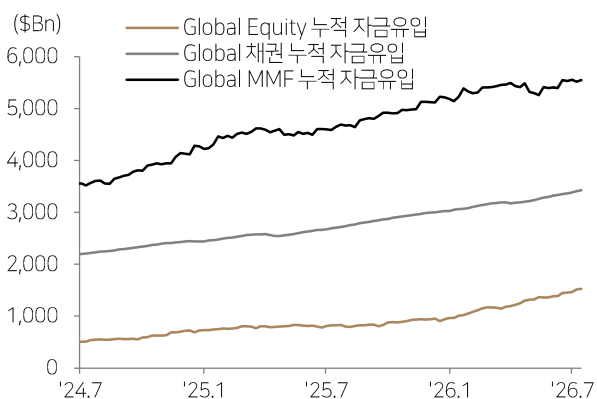
Source: Bloomberg, 연합인포맥스, 다올투자증권

달러 인덱스 및 원/달러 환율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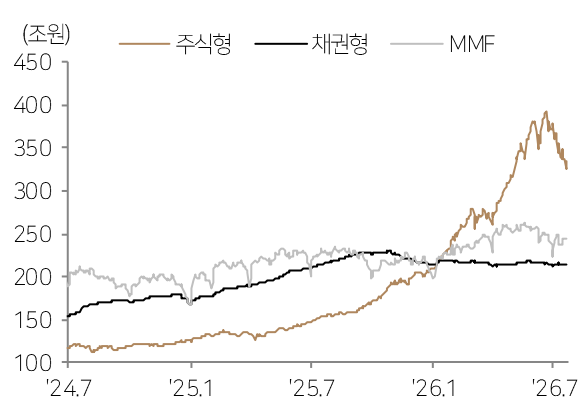
Source: Bloomberg, 다올투자증권

글로벌 펀드 플로우



Source: Refinitiv, 다올투자증권

국내 자금동향



Source: Check Expert, 다올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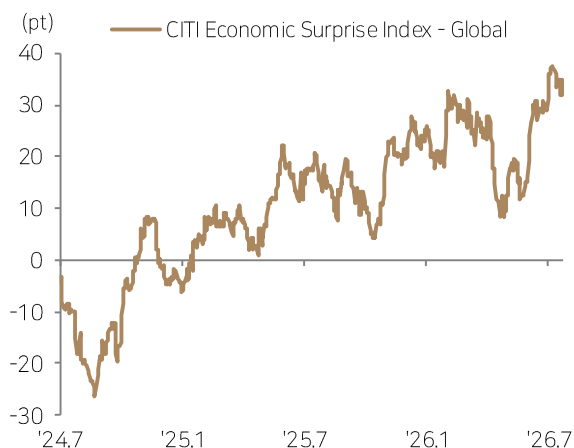
II. 경제지표 Preview

- 이번 달은 공교롭게도 FOMC 직후 GDP와 PCE 물가가 발표될 예정. 최근 확인된 CPI와 PPI는 기대보다 빠르게 안정화 되는 모습을 보이며 경계심을 낮춘 상황. 일단 연준이 고용보다 물가에 방점을 두고 있음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만큼 PCE 물가도 안정화될 시 정책 측면에서 인내심에 대한 기대가 더 생길 듯. 물론, 현 시점에서는 중동지역 긴장감 완화와 유가 하락이 우선순위
- 일본은 BOJ 금정위 결과 확인 직전, 31일 오전 도쿄 소비자물가지수가 발표될 예정. 최근 6월 PPI가 7%대에 진입하는 등 일부 영역에서 물가 압력이 나타나고 있으나 아직까지 CPI로의 전이는 가시적이지 않은 상황. 7월 회의는 동결 예상인 우위이나, 물가 상승 강도에 따라 향후 전망에 영향을 줄 소지

일자	국가/지역	일정 및 이벤트	단위	예상치	이전치
2026-07-27	미국	6월(잠정) 내구재 수주	%mom	1.5	-4.5
2026-07-28	미국	7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신뢰지수	Index	92.3	91.2
2026-07-30	유로존	2분기(속보) GDP 계절조정	%yoy	0.5	0.5
2026-07-30	미국	6월 PCE 물가지수	%yoy	3.6	4.1
2026-07-30	미국	2분기(속보) GDP 연간화	%qoq	2.3	2.1
2026-07-30	미국	2분기(속보) 근원 PCE 물가지수	%qoq	-	4.4
2026-07-31	한국	6월 광공업생산	%yoy	-	-0.9
2026-07-31	일본	7월 도쿄 소비자물가지수	%yoy	1.8	1.7
2026-07-31	일본	6월 실업률	%	2.5	2.5
2026-07-31	중국	7월 제조업/비제조업 PMI	Index	-	50.3/50.2
2026-07-31	유로존	6월(잠정) 소비자물가지수	%yoy	2.9	2.8
2026-07-31	미국	6월(최종)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Index	54.2	54.4
2026-07-31	미국	6월(최종) 미시간대 장기/단기 기대인플레이션	%	-	3.3/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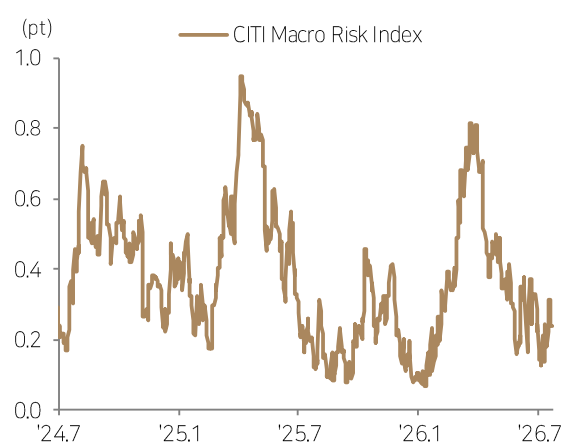
Note: 경제지표 발표일정은 한국시간 기준
Source: Bloomberg, 다올투자증권

경제 서프라이즈 인덱스 흐름



Source: Bloomberg, 다올투자증권

매크로 리스크 인덱스 흐름



Source: Bloomberg, 다올투자증권

III. 이벤트 일정 & 증시 동향 및 전망

일자	국가/지역	중요도	일정 및 이벤트	내용
7/28 ~29	미국	상	FOMC	6월 케빈 워시의 첫 FOMC에서 기준금리를 3.50~3.75%로 4연속 동결. 취임 초 금리 정책에 있어 전향적일 것이라는 기대는 있었으나, 전쟁 발 유가 압력으로 물가가 급등하는 구간이었던 만큼 매파적 톤 부각. 미국 6월 CPI와 PPI가 예상치를 하회. CPI 내 에너지를 제외하고도 대부분 항목에서 안정세가 나타나면서, 미 연준 인상 확률 상승은 진정되는 흐름. 물론 워시 의장은 이번 CPI만으로 물가 안정이 달성됐다고 보지 않는다는 신중론 유지. 동결 전망 우위 - 한편 성명서나 기자회견 내용 등이 간결해지며 전임 의장과는 소통 측면에서 확실히 달라진 면모 FOMC 이후 소통을 포함 5개 분야 TF를 구성하고 인선을 발표한 상황
7/30 ~31	일본	상	BOJ 금융정책위원회	6월 금융정책위원회에서 기준금리 1.00%로 25bp 인상(찬성 7 : 반대 1, 소수 의견 아사다 토이치로). 중동 전쟁 발 에너지 물가 상승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인상으로 시장 예상과 부합. 이번 회의에서 경제전망 수정치와 함께 향후 추가 인상이 앞당겨 질지 여부가 엔화 및 일본 국채 금리에 영향을 줄 것 - 최근 엔/달러 환율은 중동 긴장 고조에 따른 달러 강세와 유가 상승, 일본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지속 우려가 겹치며 40년 만에 163엔을 돌파하는 등 역사적인 약세를 보임. BOJ가 예상보다 많은 인상 횟수나 연속 인상 가능성을 시사할 경우 엔 캐리 청산 자극 등 글로벌 위험자산 변동성 확대 가능

Note: 이벤트 발표일정은 한국 시간 기준

Source: 다올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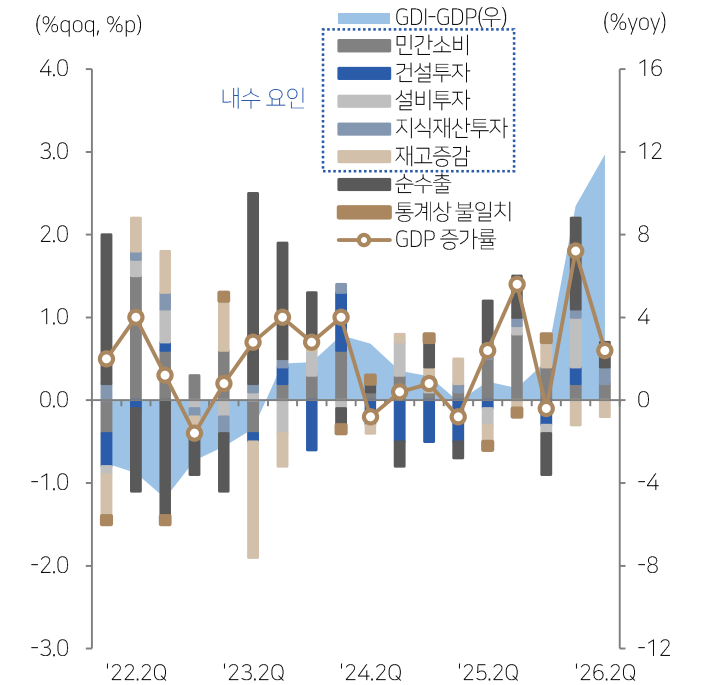
일자	내용
금주 (07/17~07/23) 증시 동향	- KOSPI(+4.1%) 상승, KOSDAQ(-0.2%) 하락. KOSPI는 에너지(+11.8%), 건설,건축관련(+10.2%), IT하드웨어(+9.9%) 업종이 상승한 가운데 소매,유통(-5.5%), 은행(-3.3%), 보험(-3.0%) 업종 하락. 코스피는 반도체 업황 우려, 중국 AI 모델 공개, 미·이란 충돌 격화 등으로 급락 출발. 주 후반 알파벳의 클라우드 매출 성장 및 CAPEX 가이드라인 상향 발표로 AI 투자 지속 기대가 확산되며 반등 마감 - DOW(-0.8%), S&P500(-0.7%), NASDAQ(-1.5%) 하락. 중동 긴장 고조와 유가 상승이 투자심리 위축 요인으로 작용한 가운데 고성능·저가형 중국 AI 모델 공개에 하락 출발. 이후 기술주 저가 매수세 유입에 반등 시도했으나 알파벳 실적 발표 이후 빅테크 비용 부담 부각되며 기술주 위주 하락 마감
차주 (07/27~07/31) 증시 전망	- 한동안 이례적인 수준의 하락 국면을 경험. AI 투자 사이클 및 반도체 업황에 대한 의구심이 형성된데다, 전쟁 상황의 심화 그리고 금리에 대한 불확실성 확산까지 결합되며 뚜렷한 트리거 이벤트 없는 급락장을 경험. 일반적인 밸류에이션 지표나 기술적 측면에서 극단적인 저평가 영역으로 볼 수 있지만, 시장의 반등에 대한 시각은 여전히 조심스러움이 남아 있음 - 펀더멘털 훼손 없이 발생한 급한 하락이었지만, 보다 추세적인 반등을 위해서는 투자의 지속성에 대한 확신과 금리의 안정화에 대한 기대가 동시에 형성될 필요가 있을 것. 직전일 알파벳의 CapEx 가이드라인이 그나마 안도감을 준 상황이나, 중동 지역의 불확실성이 재부각되면서 유가 및 금리 측면의 불안감이 다시 높아지고 있음. 일단 다음주는 예정된 FOMC를 통해 미 연준의 인내심이 다시 한 번 확인될 수 있는지 여부에 주목할 필요. 당장 비둘기파로의 전환을 기대하진 않지만, 금리 인상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점이 확인될 경우 금리의 상단 확인 기대와 함께, 다수의 불확실성 요인들이 안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반등의 주도력은 여전히 반도체를 위시한 기존 주도주에 있을 것으로 예상

Note: 수익률은 전주 금요일 종가 대비 금주 목요일 종가 기준

Source: 다올투자증권

IV. Key Chart & 핵심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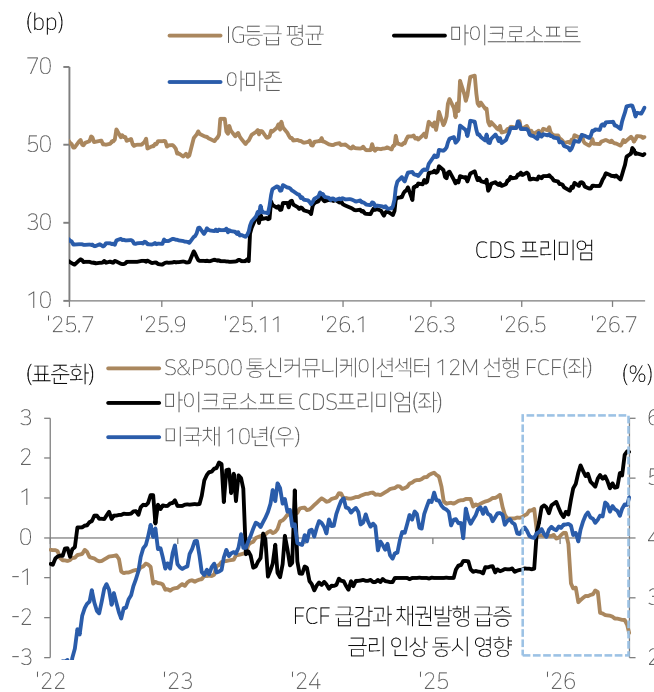
서프라이즈를 연출한 2분기 GDP, GDI-GDP 스프레드도 추가 개선



Source: 연합인포맥스, Bloomberg, 다올투자증권

- 2분기 GDP 서프라이즈 QoQ 기준 0.6%, 컨센서스 (0.4%) 상회. 1분기 높은 성장 기저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성장률 확인. 1분기는 내수(0.7%p)대비 순수출 (1.1%p) 쏠림이 두드러졌다면, 2분기는 내수(0.3%p)와 순수출(0.3%p)이 균형 성장 양상
- YoY 기준 GDI-GDP 갭도 더욱 확대(1Q +9.4%p → 2Q +11.9%p). GDI-GDP 갭은 교역조건 개선에 따른 실질 구매력 상승을 의미. 최근 자료에서 언급했던 교역조건 개선이 재확인된 것으로, 성장 측면에서는 기업들의 재산성 및 이익 상황의 근거가 될 수 있음
- 반면, 금리 측면에서는 부담을 줄 여지. 7월 금통위에서 총재는 모든 회의마다 금리 정책을 검토할 것이며, 2분기 GDI, GDP, 7월 근원/생활물가를 주의 깊게 볼 것으로 언급. 전일 금리 반등 자체는 강하지 않았으나, 7월 금통위 전후로 2분기 성장 호조가 선반영되었기 때문으로 판단. 만약 8/4일 7월 물가까지 상방압력 증가로 나온다면 8월 백투백 인상 가능성과 함께 금리 레인지 상단 4%(3년물)대 진입 시도 우려

하이퍼스케일러들의 CDS프리미엄 상승, 채권 발행 증가와 금리 영향이 모두 작용 중



Source: Bloomberg, 다올투자증권

- 하이퍼스케일러들의 투자 지속성에 대한 잡음이 지속 중. 이들의 영업현금흐름이나 수익성 등을 감안하면 당장 투자 단절이나 신용 리스크 위험에 근접해 있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상당히 빠른 속도로 외부 자금 조달 규모가 늘어나고 있어 경계심이 심화
- 이 같은 우려는 이들의 CDS 프리미엄 상승으로 표출되고 있음. 글로벌 선도기업들조차 CDS 프리미엄이 뚜렷한 우상향 기조를 보이고 있으며, 이들 중 다수가 IG 등급 평균을 상회하기 시작. 이 부분도 최근 투자 사이클 지속에 대한 의구심을 자극하는 요인 중 일부
- 이들의 CDS 프리미엄 상승은 두 가지 요인의 결합으로 볼 수 있음. 하나는 FCF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속도에 상응해서 자금 조달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는 자체가 관련 금리지표들의 상방 압력으로 작용. 다른 하나는 최근 미 국채 금리의 상방 압력에 대한 노출. 결국 다음 주 FOMC 등을 통해 미국 국채 금리의 상단이 제어되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들의 CDS 프리미엄 상승세 진정과 함께 투자 지속성 관련 우려가 완화된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을 것

www.daolfn.com

본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0. 여의도 포스트타워

본사영업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0. 여의도 포스트타워 27층

DAOL 다올투자증권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 판단을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본 자료는 조사분석 담당자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를 토대로 작성한 것이나, 제공되는 정보의 완전성이나 정확성을 당사가 보장하지 않습니다. 모든 투자의사결정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하시기 바라며,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어떠한 법적 분쟁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으며,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배포, 복제, 인용, 변형할 수 없습니다.